

담양군, 음식특화 농공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박차

2030년까지 고서·창평면 일원 에코월드팜 등 9개 기업 협약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등 기대

담양군이 2030년까지 고서면, 창평면 일원에 신규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입주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담양 음식특화농공단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에코월드팜 등 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담양군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추진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투자협약 기업은 음식특화농공단지 입주의향과 함께 담양군의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협력하게 된다.

지금까지 13개 기업이 담양군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주식회사 ㈜에코월드팜(대표 오석중), 엔피케이㈜(대표 김상준), 농업회사법인 ㈜비제이(대표 정봉진), ㈜오하이코리아(대표 최관), 에이에프 피에스엔피주식회사(대표 변상지), 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 농업회사법인 산들해㈜(대표 김현만), 주식회사 케이원로지스(대표 윤정석), 에이에프 피네오프드 주식회사(대표 이응대) 등 9개 기업이다.

군은 음식특화농공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수요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군은 일반산업단지 1개소와 농공단지 3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분양이 100% 완료되어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담양군에 투자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담양군이 2030년까지 고서면, 창평면 일원에 신규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담양군 제공

이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후보지를 고서면 산덕리와 창평면 의향리 일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부터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메디푸드, 슬로푸드, 전통식을 활용한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농공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함평군 우수기관 선정 전남도 음식문화 개선 평가

함평군은 전남도 주관 2023년 음식문화 개선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일 밝혔다. 음식문화 개선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추진체계 구축, 홍보·교육,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등 총 8개 부문 22개 지표를 종합 심사한다.

이번 평가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지역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한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평군은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평군은 2016년부터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1500만원의 상사업비도 확보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식품위생 환경 조성 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방문하고 싶은 깨끗한 함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연말 맛이 작은음악회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 작은도서관에서 연말 맛이 '작은음악회'가 열렸다. 초등학생부터 70대 노년층까지 모든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20일 장성군 삼서면에 따르면 마을 어린이의 피아노 독주를 시작으로 시 낭송, 통기타 합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으며 세대공감 퀴즈, 다과회 등 재미있고 아가자기한 순서도 진행됐다.

2012년 전국 최초 농어촌 뉴타운 1호로 조성된 삼서면 드림빌은 현재 184세대 42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자치회와 부녀회를 중심으로 마을 꾸기, 동호회 활동, 마을도서관 설립, 인문학 강연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에는 귀농귀촌활성화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동준 마을이장과 남궁협 작은도서관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아름답고 풍성한 송년음악회를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지원 영광군, 집중 발굴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지역 사회 인적 안전망을 가동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44종의 위기 정보를 추출하여 읍·면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우리동네복지기동대 등과 협력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 및 점검할 계획이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공적급여를 지원하고, 공적지원 초과 가구는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및 민간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고난도 사례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예정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 작은도서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최근 열렸다. 장성군 제공

곡성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27~28일 석곡·죽곡면서 진행 1500필지 대상 경계분쟁 해소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간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로이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경계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석곡

석곡지구, 죽곡 원달지구 2개소로 곡성군은 지난 11일 상기 2개 지구 1500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람공고한 바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오는 27일 △석곡면 석곡1구 마을회관(오전 9시30분) △석곡면 석곡2구 마을회관(오전 11시) △석곡면 능파1구 마을회관(오후 2시) △석곡면 능파2구 마을회관(오후 1시30분), 오는 28일 △죽곡면 원달1구 마을회관(오전 10시) △죽곡면 원달2구 마을회관(오전 11시30분)에서 진행된다.

곡성군은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 사업지구 위치도 및 기초현황, 추후 절차, 주민 협조사

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여 14개 지구 7811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곡성 장선지구 외 3개 지구 1000필지는 내년 중 완료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함평군, 우량 암소 개량 가속화... 한우 경쟁력 강화

함평군은 오는 2024년부터 첫 시행하는 '우량 암소 형질 개량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한우 개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우량 암소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량 암소를 비롯한 한우 혈통 개량 방법에 대한 노하우와

타 지자체의 개량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함평군 한우 사육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명품 한우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함평군에서 우량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함평을 5곳, 월야면 7곳 등 총 28곳으로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우량

암소 개체수는 88두이며 이번 우량 암소 형질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우량 암소 사육 농가와 개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2024년을 '우량 암소', '한우 개량'의 원년으로 삼고 우수한 한우 혈통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우량 혈통 한우의 육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준공 주거·문화지역으로 탈바꿈

나주시 노안면 일대에 추진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22일자로 준공 승인을 받는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하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의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된 지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 상업, 문화,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주 노안지구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에 인접한 곳으로, 지난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시행자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1년간 총 사업비 306억원을 투입해 10만4000㎡(3만2000평)에 주거, 숙박 및 문화체험 시설 등 입주를 위한 단지를 조성했다.

환경부는 조성된 단지에 분양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등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담양 메타뮤직페스티벌 23일부터 사흘간 메타랜드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담양 메타랜드와 원도심 일원에서 '2023 담양 메타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타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담양을 찾은 방문객들이 야간경관조명과 포토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로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주 무대는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내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앞 야외에 위치하며 좌석이 없는 스탠딩 형태로 운영된다. 축제장 입장권은 2000원으로 현장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 소비가 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담양=신재현 기자